

민주 “텃밭 사수” vs 조국 “교두보 마련”... 군수선거에 ‘사활’

곡성·영광 재선거 전국적 관심
양당 대표·지도부 연일 방문
상대 당 저격 등 신경전도 가열
조국, 부산 금정구청장 단일화 제안



이재명 대표, 곡성 수확현장 방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전남 곡성군 석곡면 논에서 백세미 수확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0·16 영광·곡성 재선거를 두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재선거 결과에 따라 다음 지방선거에서의 ‘호남 텃밭 사수’를 장담할 수 없고, 지역 구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는 조국혁신당은 ‘호남 교두보’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당의 청사진을 내놓을 수 없다는 점에서, 이번 재선거에 사활을 걸고 있다.

양당은 당 대표가 연일 호남을 찾아가며, 지도부도 다양한 통로를 통해 상대 당을 저격하면서 호남 재선거가 전국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24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자신이 앞서 “혁신당은 상하기 시작한 물”이라고 비판한 것을 두고 혁신당이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최고위원은 혁신당 조국 대표가 지난달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겨냥해 “고인 물은 썩는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혁신당에서 먼저 네거티브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 지난 19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국회 본회의의 표결 당시 조 대표 등이 재보선 지원을 이유로 불참한 데 대해 “윤석열 정권을 탄핵하겠다는 당이 특검법 표결에 불참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라며 “변명의 여지가 없고 당 차원에서 사과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혁신당 황은하 원내대표는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혁신당은 비교섭단체여서 국회가 언제 본회의를 여는지 알기도 어렵고, 이에 맞춰 언제 지방 일정을 잡을지 결정하기도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는 “특검법 표결 때도 여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예상하고 지방 일정을 잡았다. 뒤늦게 필리버스터 없이 표결된다는 소식을 듣고 서울로 향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늦었다”며 비교섭단체의 어려운 처지를 설명했다.

황 원내대표는 본회의의 불참을 사과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과도한 공격이며, 이는 지지자들끼리 갈라치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광주지역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호남에서) 우리 지지율이 많이 오르고 있어 민주당의 메시지가 강해지고 있다”며 “이번 선거는 조직 대바람의 선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혁신당 조국 대표도 전남도의회에서 열린 영광군수 장현 후보와 곡성군수 박용두 후보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호남 정치 혁신과 지역발전의 계기가 되어 한다”며 “혁신당은 재선거 원인 제공

을 하지 않았다. 재선거가 계속 불거지는 것은 (정당 간) 경쟁이 없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을 겨냥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것이고, 혁신당 후보가 당선되면 윤석열 정권을 심판 안 하는 것이냐”며 “(지방정치는 민주당) 독점이 아니라 경쟁으로 가야 한다”고도 했다.

조 대표는 또 혁신당 후보를 내지 않은 인천 강화군수 선거는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다면서,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의 경우 민주당과 혁신당 후보간 단일화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어 “영광군수와 곡성군수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민주당과 국회에서 협력할 것”이라면서 “민주당 후보에 정책 토론회를 요청한다. 공정하게 경쟁해 결과에 승복해 군민이 주인인 축제 같은 선거를 치러보자”고 제안했다.

/오광록·김해나 기자 kroh@kwangju.co.kr



조국 대표, 공약 발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4일 오후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의도 브리핑

정준호, 초등생 청원 ‘한글간판법’ 발의

22대 국회 최초로 초등학생들이 법안을 제출한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정준호(광주 북구갑) 국회의원에 따르면 광주시 각하초·빛고을초 4학년 학생 150명은 지난 7월 정 의원에 ‘한글 간판을 늘려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학생들은 ‘주변에 있는 가게 간판이 영어, 한자, 러시아어, 일본어 등 외국어로만 적혀 불편을 겪고 있다’ ‘외국어로만 적힌 간판을 모두가 읽게 해달라. 그렇게 하면 외국어를 모르는 어린이나 어르신들이 알아볼 수 있다’ 등의 내용을 편지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편지 내용을 바탕으로 육외광고물법 개정안을 만들었고, 25일 대표 학생 9명을 국회로



초청해 함께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간판 등 광고물의 문자를 한글 맞춤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외래어 표기법 등에 맞춰 한글로 표시할 것을 규정했다. 또 광고물을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併記)하는 내용을 담았다. 청원자인 초등학생들이 직접 법안을 제출하는 것은 22대 국회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청년 예산 증액 ‘취약청년지원법’ 추진

당정, 강소기업 취업 정보 제공·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등

정부와 국민의힘은 24일 취약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청년 지원 대책 추진에 합의했다고 김상훈 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위기청년이 경쟁에서 낙오하지 않고 공정한 출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음 달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를 출시하는 등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도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우대 저축공제는 월 10만~50만원의 근로자 납입금, 기업 지원금(납입액의 20%), 은행 금리 우대(1~2%), 정부 세제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청년이 선호할만한 ‘참 관촬은 중소기업’ 3만개와 각 정부 부처에서 선정한 강소기업 채용 정보도 공개한다.

당정은 청년층 취업도 적극 지원한다.

우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 대상을 대학 재학생 18만명과 졸업생 6만명으로 늘리고, 청년들이 기업 현장에서 희망 직무에 경험을 쌓는 기회를 확

대한다. 국가 장학금 신청자 150만명의 정보를 고용보험과 연계해 졸업 후 장기 미취업자를 발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밀착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에 200억원을 투입한다. 구직 단념 청년을 지원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도 1만2000명으로 확대한다.

당정은 청년 취업 지원 예산을 올해 1조9689억원에서 내년 2조2922억원으로 약 16% 증액했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예산은 1119억원으로 늘렸고, 청년 일자리 강소기업 250곳 대상 근무 환경 개선에 15억원을 투입한다.

학생·청년의 현장 기술 훈련과 취업 병행을 위해 기술사관(55억원~63억원), 계약학과(150억원~156억원), 대중소기업 상생 일자리 (25억원~30억원) 등 관련 예산도 늘렸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문금주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 외면”

기후위기로 고수는 피해가 늘었지만 어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성 보험인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이 제 역할을 못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고수은으로 인한 지역별 양식장 피해현황’에 따르면 고수은 피해액은 2022년 9억5000만원, 2023년 438억2000만원, 2024년 9월 기준 405억7000만원으로 최근 3년간 총 853억6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올해 피해액은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1차 심의결과 피해액이어서 2차 심의결과에서 추가로 피해가 확인되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남이 조피블락·말치·넙치 등 어류 및 멧게 등에서 522억4000만원의 피해를 보였다. 전남은 조피블락 등 어류 및 전복, 굴



및 해조류, 새고막 등에서 292억5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충남 26억원, 경북 12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고수는 피해가 급증하고 대형화되고 있지만, 이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정부의 정책보험인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어민들에게 외면을 받는 실정이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률은 2023년 39.8%(2936어가)에 불과하다. 2018년 44.3%(4250어가) 수준의 가입률조차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이 어가들로부터 외면받는 주요 원인은 재해보험이 어가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광록 기자 kroh@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